
**2009 KOIMA 북아프리카/유럽 통상사절단
포르투갈(Portugal) 정보**

2009. 9.

**한국수입업협회
국제통상팀**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포르투갈 개황 | 1 |
| II. 포르투갈 경제 현황 | 2 |
| III. 포르투갈 주요 산업 | 4 |
| IV. 한-포르투갈 투자·교역 현황 | 9 |
| V. 포르투갈 주요 관습 | 11 |

- 별 첨 : 1) 포르투갈 소개자료(영문)
2) 포르투갈 주요 지표(영문)

포르투갈 개황

■ 포르투갈 개관

가. 일반사항

- 국명 : 포르투갈공화국 (A República Portuguesa)
- 면적 : 92,141.5 Km² (한반도의 약 2/5)
- 인구 : 1,051만 명 (해외이주자 : 480만명)
- 수도 : 리스본 (Lisboa, 56만명) / 리스본근교 포함시 185만명
- 민족 : 이베리아족, 켈트족, 라틴족, 게르만족, 무어족등의 혼혈
- 언어 : 포르투갈어
- 종교 : 카톨릭(90% 이상이나 국교는 아님)
- 기후 : 대양, 지중해 및 대륙성기후의 혼합형
- 표준시 사용 (단, 3월과 10월 마지막 일요일에 한 시간을 변경하여
섬머타임제 실시)

나. 정치

- 정부형태 : 대통령중심제를 가미한 내각책임제
- 국가원수 : Jorge Sampaio 대통령 (1996.3월 취임, 2001.1월 재선, 사회당)
 - 대통령 : 직선 선출, 임기 5년, 1회 연임 가능
- 행정수반 : José Socrates 총리 (2005.3.12 취임, 사회당)
 - 총리 :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로 취임
- 의회제도 : 단원제(임기 4년, 230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)
- 주요헌법기관 : 국가평의회, 헌법재판소
- 군사력 : 43.1천명 (육군 23.4, 해군 12.2, 공군 7.5)

포르투갈 경제현황

■ 경제현황 (*최근 경제지표는 별첨 참조)

가. 경제성장

- 1986년 EU 가입이래 10년간 EU 회원국중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오던 포르투갈의 경제는 장기간의 소비 분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로 내수가 감소하고, 사회당 前 정부의 방만한 예산운영에 따른 재정적자 악화 및 세계경제의 위축 등이 겹쳐 1998년을 고비로 하강하기 시작, 2001년 이후 경기 침체가 지속
- 장기간의 경기 침체는 실질가처분소득 둔화 및 소비자신뢰지수 하락에 따른 민간소비 감소, EU 안정성장협약 이행을 위한 긴축재정정책 시행으로 인한 공공소비 위축 등 국내수요 감소에 기인

나. 물 가

- 2001.6.5일부로 시행된 부가가치세의 인상(17%→19%)으로 물가상승률이 최고에 달했으나 그후 2002년 3.7%, 2003년 3.3%, 2004년 2.5%로 하향 안정세임. 2004년의 경우 모든 부문에서 공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민간소비 및 투자수요 위축과 EU 안정성장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의 긴축재정정책에 따른 공공소비 감소로 수요가 더욱 위축된데 기인

<물가상승률(HICP)>

| 구 분 | 96 | 97 | 98 | 99 | 2000 | 2001 | 2002 | 2003 | 2004 |
|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포르투갈 | 2.9 | 1.9 | 2.2 | 2.1 | 2.8 | 4.4 | 3.7 | 3.3 | 2.5 |
| Euro 지역 | 2.2 | 1.6 | 1.1 | 1.2 | 1.9 | 2.2 | 2.1 | 2.0 | 2.0 |

※ 유로화 도입이후 각국의 물가 수준 비교

- 이태리 소비자 조사기관인 Altroconsumo의 각국 물가수준 조사에 따르면 유로화 도입이후 가장 높은 물가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는 벨기에와 네

덜란드이며 스위스와 영국은 스위스프랑 및 파운드 대비 유로화 강세의 영향으로 스페인, 독일과 함께 낮은 물가수준 유지

- 유로화 도입이후 영국과 스페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의 물가수준이 높아졌고, 이중 포르투갈과 이태리가 가장 높게 상승한 반면, 영국은 파운드화 평가절하로 낮아졌으며, 독일은 별다른 가격변화 無

다. 국제수지

- 포르투갈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국이며 상품수지 적자를 서비스 및 경상이전수지 흑자로 보전
- 주요 교역대상국
 - 수 출 : 스페인, 프랑스, 독일, 영국, 미국, 이태리, 네덜란드 순
 - 수 입 : 스페인, 독일, 프랑스, 이태리, 영국, 네덜란드 순
- ※ EU 회원국은 포르투갈 수출액의 79.4%, 수입액의 76.6% 등 교역량(729억유로)의 77.7% 차지
- 주요 수출입 품목
 - 수 출 : 자동차 및 수송기기 완제품, 기계·설비, 의류
 - 수 입 : 기계·설비, 수송기기 부품, 화학제품

라.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

- 포르투갈은 무역수지와 마찬가지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국
 - 의료 및 교육분야 지출확대 등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각종 조세특혜와 탈세로 인한 세원 빈약에 기인
- ※ Euro 가입국 및 EU회원국의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현황
 - 재정적자율(%) : 유로가입국(평균) : 2.3(2002) → 2.7(2003)
EU회원국(평균) : 2.0(2002) → 2.6(2003)
 - 정부부채율(%) : 유로가입국(평균) : 69.2(2002) → 70.4(2003)
EU회원국(평균) : 62.5(2002) → 64.0(2003)

포르투갈 주요산업

■ 주요 산업

- 관광산업 이외에도 자동차, 건축자재, 패션 및 Footware, 식품 및 음료 가공, Habitat, 기계·장비, IT 및 전자산업 등 7대 수출산업이 발달

가. 관광업

- 포르투갈 GDP의 8%, 경제활동 전체인구의 6.5% 고용
- 세계관광기구(WTO)에 의하면, 포르투갈 관광객은 11.7백만명(2002년 기준)으로 세계관광시장의 1.7%를 점유하여 세계 제17위 기록
 - 관광수입은 약60억불로 세계시장의 1.2%로 세계 20위
- 포르투갈은 유럽내 여타 국가에 비해 비교적 좋은 기후, 전국적으로 고르게 퍼져있는 beach 및 골프장, 비교적 싼 물가, 호텔 등 양호한 인프라, 로마·이슬람·카톨릭 등에서 생성된 다양한 문화유산과 포르투갈 정부의 관광홍보 강화 등으로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
 - 포르투갈의 관광객 일일수용인원은 99천명으로 세계전체의 0.6% 수준 (세계 25위)

나. 자동차 산업

- 1960년대 태동
- 연간 24만대 생산, 이중 VW 등 유럽회사가 50% 차지하고 있으며 포르투갈 GDP의 2%, 포르투갈 수출액의 11% 점유
- 수출액 : 연간 63억유로 (이중 부품수출액은 38억 유로)
- 43개 자동차 회사가 포르투갈에 진출

다. 건축자재

- 세계 제5위의 자연석(대리석, 화강암, 석회석, 편암 등) 생산국으로 세계생산량의 4.3% 점유
- 바닥, 벽, 천장에 사용되는 코르크 주요 생산국
- 테라코타, 도자기 등 세라믹(Azulejo라고 불림) 발달
- 수도꼭지, 위생도기(sanitary ware), 욕조 등 화장실용 제품생산

라. 패션 및 Footware

- 의류 및 직물산업과 함께 패션산업이 급속도로 발전
 - 의류 및 직물산업 관련회사 1만7천개(주로 북부지방에 위치), 근로자 25만명, 포르투갈 가공산업의 15% 점유
- 유럽내 제2위, 전세계 제9위 가죽 Footware 생산국으로 생산량의 90%를 주로 유럽시장에 수출

마. 식품 및 음료 가공

- 농산물 및 식품가공산업은 포르투갈 GDP의 8%, 종사자 10만명
- 대서양과 지중해 문화적 요소가 섞인 식품과 포도주를 공급
 - 올리브 오일, 'Rocha'배, 토마토 가공제품,湧水 등
- 세계 제11위 테이블 와인 생산국으로 농업인구의 28%가 포도재배 및 포도주 생산에 종사
 - 포도주의 품질유지 및 출처확인을 위해 40개의 공식 포도원(demarcated regions)을 지정
- 기타 뵘르뚜(Porto) 와인, 마데이라(Madeira) 와인 등이 유명
 - ※ 포르투갈은 세계최초로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한 전용 포도원(demarcated wine region)을 개발

바. Habitat

- 식사 도구(ナイ프, 포크, 스푼 등), 부엌용품, 낫쇠제품, 銅제품, 플라스틱제품, 白鐵제품, 코르크 및 목재 선물용품 등 가정용품 산업이 발달
- 세라믹, 유리 및 크리스탈 제품(예: Mglass 브랜드)으로 유명

- 플라넬, 수건, 침대커버, 식탁포 생산 등 가정용 직물산업 발전
- 500년 전통을 지닌 가구제조업과 전등제조업 발달

사. 기계·장비

- 직물기계류, 목재·금속 기계류 및 건설장비 등을 생산, 수출
- 최근 Laser로 절단하는 기계인 ADIRA를 생산
- 주로 Porto, Braga, Lisboa, Leiria, Setubal지역에 집중

아. IT 및 전자

- 전자상거래 및 인공지능(AI)의 적용, 통행료 자동징수 시스템(Via Verde)시행, ATM 네트워크 작동 등
- 유럽과 미국내 철도 네트워크 및 항공회사 뿐만아니라 NASA, MS, CISCO, INTEL 및 주요 일본은행에 대한 솔루션 공급자가 될 정도로 발전

자. 서비스·기술

- 생명과학 특히, 생명의학이 세계적인 수준
 - 굴벵키안 과학연구소 등
- 건축공학도 상당한 수준으로 자체 기술로 4·25현수교(2.2km)와 Vasco Da Gama교(17.2km)를 건설
- 컨설팅분야도 발달하여 직접투자, 양자간 협력, 국제금융기구가 발주하는 사업에의 참여를 통해 추진

차. 기 타

- 그밖에 주물(foundry), 주형(mold) 및 코르크 마개 생산 분야가 발달

■ 경제단체 현황

AIP/CCI (포르투갈 산업협회/상공회의소) (설립년도 : 1837년)

- Associação Industrial Portuguesa, Câmara de Comércio e Indústria
- AIP는 상공회의소(Public) 역할 수행 및 FIL 보유, 운영
- 대한상공회의소(대한상의)와 비슷
- 홈페이지 : www.aip.pt

CPI (포르투갈 경제인연합회) (1974년)

- Confederação da Indústria Portuguesa
- 우리나라 전국경제인연합회(전경련)에 해당
- 홈페이지 : www.cip.org.pt

ACL/CCIP (리스본 무역협회/포르투갈 상공회의소) (1834년)

- Associação Comercial de Lisboa/Câmara de Comércio e Indústria Portuguesa
- ACL은 포르투갈 상공회의소(Private) 역할 수행 및 상사분쟁해결 업무 관장
- 우리나라 한국무역협회(무협)와 대한상사중재원에 해당
- 홈페이지 : www.port-chambers.com

ANPME (전국 중소기업협회) (1999년)

- Associação Nacional das PME's
- CPI에서 독립, 유럽중소기업협회 멤버
- 시장조사, 금융지원, 회계, 조세, 기업설립, 허가, 실적평가, 광고 등 중소기업지원
- 홈페이지 : www.anpmes.org

PME Portugal (포르투갈 중소기업협회) (1998년)

- Associação das Pequenas e Médias Empresas de Portugal
- 영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서비스 및 상·공업 분야 지원
- 홈페이지 : www.pmeportugal.com.pt

AEP (포르투갈기업인협회) (1849년)

- Associação Empresarial de Portugal
- Porto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, 북부지역 상공회의소 기능을 수행
- 홈페이지 : www.aeportugal.pt

※ 우리나라의 경영자총연합회(경총)에 해당하는 단체는 없음.

한-포르투갈 투자·교역현황

■ 투자 현황

(단위 : 건, 천불)

| 연도 | 신고건수 | 신규법인수 | 신고금액 | 투자건수 | 투자금액 |
|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|
| 2003 | 8 | 1 | 16,005 | 7 | 10,492 |
| 2004 | 2 | 2 | 12,297 | 2 | 12,297 |
| 2005 | 1 | 0 | 1,493 | 1 | 1,493 |
| 2006 | 2 | 1 | 4,406 | 2 | 4,406 |
| 2007 | 2 | 1 | 1,198 | 4 | 1,229 |
| 2008 | 0 | 0 | 0 | 0 | 0 |
| 현재까지의 누계 | 38 | 9 | 222,288 | 40 | 116,692 |

※ 출처: 한국수출입은행

가. 포르투갈내 투자여건 및 우리나라의 투자현황

- 포르투갈은 EU 및 OECD 회원국이지만 경제규모 및 산업발전정도를 볼 때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이 발달하고 유통업이 일부 발달한 정도이며, 제조업 등 공업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하여 공업기반 확장을 위해 외국인투자유치에 전념하고 있음.
- 현재 포르투갈에는 자체 자동차생산업체가 없으며, Volkswagen, Citroën, Fiat, Mitsubishi 등 외국기업이 다수 투자하여 생산하고 있으나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높은 임금상승률,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철수하거나 투자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

나. 포르투갈의 해외투자 및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현황

- 포르투갈은 EU회원국(스페인, 화란, 프랑스 등), 중남미(브라질 등),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 국가(앙골라, 모잠비크 등), 역사적·지리적 인근국가(모로코 등)에 제한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, 투자분야도 금융, 운송, 통신 등에 국한되어 있음.

- 2008년 포르투갈내 외국인직접투자는 약 320억유로(순투자는 24억유로) 인데 반해, 포르투갈의 대외직접투자는 약 87억유로(순투자는 -14억유로)에 그침.

< 포르투갈의 투자현황 >

(단위 : 백만유로)

| 구 분 | 2005 | 2006 | 2007 | 2008 |
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포르투갈내 외국인 직접투자 | 27,677 | 32,820 | 32,634 | 31,985 |
| 순투자 | 3,160 | 8,695 | 2,238 | 2,411 |
| 포르투갈의 해외직접투자 | 8,083 | 4,137 | 10,822 | 8,660 |
| 순투자 | -1,698 | -5,691 | -4,013 | -1,437 |

※ 출처: 포르투갈중앙은행

■ 교역 현황

< 한국의 對포르투갈 교역현황 >

(단위 : 백만불, %)

| 구 분 | 2004 | 2005 | 2006 | 2007 | 2008 | 2009 (1~4월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수출 (증가율) | 303 (26.1) | 381 (25.7) | 380 (-0.2) | 414 (9.1) | 411 (-0.8) | 185 (20.9) |
| 수입 (증가율) | 65 (66.6) | 48 (-25.8) | 104 (115.7) | 202 (93.7) | 78 (-61.2) | 19 (-31.6) |
| 무역수지 | 238 | 332 | 276 | 212 | 333 | 167 |

※ 출처: 한국무역협회

○ 포르투갈은 우리의 수출상대국 73위, 수입상대국 80위

○ 주요 교역상품(08년 기준)

- 수출 : 기계류(35% 차지, 전년동기대비 6.7% 감소),
전기·전자제품(28% 차지, 16.1% 감소),
철강·금속제품(15% 차지, 19.7% 증가)
화학공업제품(13% 차지, 64.4% 증가)
섬유류(4% 차지, 3.7% 증가)
플라스틱·고무·가죽제품(3% 차지, 9.4% 감소)
농림수산물(1% 차지, 18% 감소)
- 수입 : 전기·전자기기(38% 차지, 전년동기대비 61.2% 감소),
섬유류(22% 차지, 28.6% 증가),
화학공업제품(14% 차지, 31.1% 증가),
농림수산물(9% 차지, 24.3% 증가),
기계류(9% 차지, 59.9% 증가)

포르투갈 주요 관습

■ 포르투갈인의 특징

- 카톨릭 전통으로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기질
(종교적인 축제나 휴일 엄수)
- 포르투갈인들은 평화를 애호하고, 온순하고 낙천적이며, 선천적으로 예의바르며, 타인을 잘 배려
 - ※ 포르투갈인들은 식민지를 탄압이 아닌 공존(현지화)하는 방식으로 통치
- 다소 보수적일 정도로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는 편이며, 공식적인 호칭을 사용하는 경향
- 또한, 함께 식사하거나 음주하기 위해 또는 생일 등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흥겨운 시간을 갖는 것을 선호
 - 음식이 다소 짠 편이며, 디저트로는 단 것을 선호
- 라틴인들의 다혈질적인 기질도 가지고 있어 운전 시 무모할 정도로 거칠게 운전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 가능
- 한편, 이러한 국민성 이면에는 우리나라의 恨과 비슷한 국민적인 정서 (포르투갈인들은 saudade라 함)가 저변에 존재
 - 이는 잃어버린 또는 이를 수 없는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가슴 저미는 melancholy와도 같은 것